

주일의 말씀

“신부님 이제 가시면 언제 또 오십니까?”



이종엽 라파엘 신부
군종교구 지성대성당 주임

저는 올해 임관한 공군 군종 신부입니다. 공군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긴 활주로가 있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비행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이곳은 비행장도 활주로도 전투기도 없는 대공방어를 주 임무로 하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2여단입니다. 공군 부대의 특성상 10여개의 예하 포대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주일에 성당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자 병사들은 영적으로 목마르고 고해성사를 보려고 해도 인근 성당에 갈 수가 없어서 군종신부인 제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나마 제가 있는 본부의 군인들은 주일마다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이러한 병사들을 위해 저는 미사 가방을 꾸리고 간식도 챙겨서 성당을 출발합니다. 가까운 곳은 1시간, 먼 곳은 4시간 동안 달려가야 하는 포대들도 있습니다. 10개가 넘는 포대들을 다 돌면서 미사를 봉헌하기란 아무리 시간을 내어 다녀도 공소 미사와 부대 교육 일정 등으로 두 달에 한 번 꼴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병사들 생활관 휴게실에 양해를 구하고 신자들을 부르면 대략 8~10명 정도 많은 곳은 15명 이상도 모입니다. 하지만 그중에 신자가 아닌 병사들도 두세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천주교 신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왔니?” 그러면 대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당에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잘 왔다. 신부님이 십자성호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해봐” 하며 그들에게 성호 긋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신자병사들과 함께 봉헌하는 미사는 정말 목마름을 채워 주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아 차안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를 봉헌 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아 휴게실에서 미사를 봉헌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워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때 저 또한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남짓 미사와 고해성사를 주고 돌아서는 저에게 아쉬움이 남는 병사들이 묻습니다.

“신부님 이제 가시면 언제 또 오십니까?”

“그래 최대한 자주 올게. 기도 열심히 하고 파이팅!”

이 이야기는 제가 있는 공군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되고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복음과 희망입니다. 오늘 군일주일을 맞아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군종신부님들과 군 신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가진 것을 팔고 나서 나를 따라라. 마르 10,21 참조

지혜 7,7-11 히브 4,12-13 마르 10,17-30.

내 모호한 그리움의 님

구자명 임마꼴라따 | 소설가

한가위를 앞두고 문득 밤하늘을 쳐다보면 시나브로 동그렇게 차오르고 있는 달님의 모습이 마치 사랑에 겨워 얼굴을 환히 밝히고 연인을 지그시 내려다보는 사람의 얼굴 같다. 높고 청명한 가을 밤하늘에 소슬하게 걸린 보름달은 그 충만한 형태와 광휘에도 불구하고 웬지 아련한 애상(哀想)을 자아낸다. 그 애상은 치렁치렁 휘감기는 슬픔이나 스멜스멜 번져드는 서글픔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아득하게 느껴지는 어떤 모호한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다.

모호하게 그림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애달플지언정 고역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보고싶다든지, 함께 있고 싶다든지, 뭔가를 같이 나누고 싶다든지 등등의 구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라면 해소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뭘지 꼬집어서 표현할 길 없는 열망에 휩싸여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다면 그것을 모호한 그리움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 아무리 생활이 풍족하고 부모형제자식 또한 두루 평안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지내는 다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철저히 홀로인양 느껴지는 때가 아주 없지 않으리라.

만해 한용운 시인은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의 서시에서 '님만 님이 아니라 /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기룬'이란 '그리운'의 옛말인데, 그시의 마지막 행에서 그 낱말의 동사형을 써서 선포하는 이야기는 불제자(佛弟子)의 말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제

자가 구사하는 시어(詩語)처럼 들린다. '나는 해 저문 별관에서 /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이는 /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나는 이 짧은 시구를 처음 접했을 때 거기서 배어나는 그리움의 파동에 감전되는 듯한 공명을 느꼈다. 이어 곧바로 떠올린 노랫구절이 있었는데, 좀 어처구니없게도 다음의 찬송가 구절이다. '예루살렘 내 복되고 즐거운 낙원이어, / 너를 생각할 때면 마음 답답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절의 가사를 내가 전혀 엉뚱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가톨릭 성가 65번인 <예루살렘 복되고>의 첫 구절로서, 그 두 번째 행이 언제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성가집에는 '주 함께 계시오니 기쁨 가득하네'로 나와 있다. 어쨌든 나는 앞서 얘기한 모호한 그리움이란 것의 첫 경험을 유치원 시절 미사 때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했다. 영원히 가 닿을 수 없을 지 모를,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하지만 그곳이 아니고는 진정으로 행복해 질 수가 없다고 알려진, 그 낙원 세상에 대한 모호한 그리움과 낙담으로 가슴이 녹아드는 것 같은 감정을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다고 하면 잘 믿어지지 않으리라.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고, 지금의 나 또한 만해선사의 표현대로 '해 저문 들관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을 기루어' 찾아 나서실 님을 '기루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박성규 엘리자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8주일
군인주일

입당성가

459 너희는 가진 것 팔아

화답송

◎ 주님,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
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
은 것뿐이리라.

파견성가

457 일하며 기도하리다

영성의 향기 성령과 시명

::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일

신앙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일을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여 주시는데 하느님 나라라든지 인간의 구원, 해방 등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 주시는 신앙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현존하지만 볼 수가 없는 실재를 보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로 먼저 보여졌고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알아 듣도록 작용하시기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 신앙의 여러 측면

하느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세상,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각 시대와 장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서 거기 계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보여 주셨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느님께서 보여 주시는 일을 회피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인이란 이런 일들 앞에서 피하지 않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가정에서 사랑을 시작하라



나는 여덟 명의 자녀를 둔 어느 힌두교 가정에 갔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사 한 분이 찾아와서는 “수녀님, 아이가 여덟이 되는 가족이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굶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쌀을 가지고 당장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보니 너무 굶주려 눈이 빛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너무도 자주 봅니다. 아이들 엄마는 내가 가져간 쌀을 받아서 다른 그릇에 나눠 담더니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오자 나는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또 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웃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날 밤 더 이상 쌀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기쁨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엄마가 있어서 기쁨이 빛나고, 그 기쁨을 또 서로 나누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마더 데레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 문 중에서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0.17(토)은 故 이창호(안드레아) 신부님 1주기입니다. 10시30분 성좌자료에서 미사 있습니다.

성모당 봉헌 기념 전대사 미사

• 일시: 10.13(화) 15:30, 장소: 성모당

제2회 성모당 음악회

• 일시: 10.16(금) 19:30, 장소: 성모당

★ 모임행사 ★

세계 십자가 소품 전시회(최경환 신부님 소장품)

• 일시: 10.14(수)~18(일) 10:00~20:00(주일21:00까지)
• 장소: 범어성당 전시관
• 내용: 전통로마 가톨릭 십자가, 동방교회 십자가, 유럽과 미주 십자가, 국내 의 작품 십자가, 개신교 십자가, 기타

교구 가톨릭운전기사 사도회 월례회

• 일시: 10.14(수) 14:00, 장소: 가톨릭교육원

예비신학생 월 모임

• 일시: 10.18(일)14:00, 장소: 남산동신학교&4·5대리구청

2009년 성령쇄신추계대구대회

• 일시: 10.24(토)10:00~18:00
• 장소: 성 김대건 기념관
• 초청장사: 박효철(베네딕도신부)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장
• 문의: 551-9111-2

제27차 교구평협 정기총회

• 일시: 10.31(토) 13:00 접수
• 장소: 교구청 내 교육원 나눔 4층 회의실
• 문의: 교구평협 250-3057

장례지도사 사도회 월례회

• 일시: 매월 셋째주 월요일 19:00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연도실 256-2046

★ 성소모임 · 피정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구

• 성소모임: 매달 넷째 주 일요일 14:00
• 렉시오디비나: 매주 금요일 19:30
• 장소: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성소자실
• 문의: 011-803-8973 / 659-3404

스승여수의제자수녀회 1박2일 자연피정

• 일시: 10. 17(토)~18(일), 장소: 청도 용달샘 피정의 집
• 주제: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 1,31)
• 대상: 만 35세 미만 자매님
• 문의: 010-2717-0363 / 싸이susikipddm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대구 성소모임

• 일시: 10.18(일) 13:30, 장소: 천사들의 집
• 문의: 011-858-3107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0.18(일) 14:00, 장소: 계산서원
• 문의: 010-9407-6219 / 054-434-8660

★ 모 집 ★

제41기 선교대학 개강

• 현장 실습 결합 프레젠테이션 영상 교육
• 일시: 10.17(토) 10:00~16:00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계산문화관 3층 가두선교단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기간: 10.19(월)~11.27(금)/주5회 6주(240시간)과정
• 접수기간: 10.12(월)~16(금)15일간/내방
• 장소: 교구청 교육원가동3층(255-7222)
• 대상: 요양보호사활동에관심있는분 선착순30명

대구파티마병원 제11차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신규교육

• 일시: 10.26(월)~10.28(수)
• 인원: 임급 선착순 30명
• 수강료: 2만원 (임급 후 연락요망)
• 대구은행 253-13-000810 이혜숙
• 문의: 053-940-7415 / 010-6425-5650

제7회 겨울방학 해외봉사 & 어학연수 단체 모집

• 출발: 1차-12.28(월,8주) / 2차-2010.2.24(수,12주)
• 지역/대상: 캐나다,필리핀,호주 / 대학생 및 성인
• 설명회 일시: 10.31(토) / 대구시청소년수련원
• 2010청소년 겨울영여캠프: 필리핀 바콜로드
• 문의: 656-6655(ARS 4번) www.dgyouth.net

제대꽃봉사자를 위한 전례꽃꽂이 강좌 회원 모집

• 일시: 11.24(화) 10:00~12:00, 마감: 11.9(일)
• 장소: 교구청 별관 화합실, 과정: 1년(기초반-전문가반)
• 내용: 실습, 전례꽃이론, 봉사자에 절
• 문의: 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010-5501-4042

가톨릭근로자회관 강좌 안내(253-1313)

• 독일어강좌 - 주2회 월~금
• 스페인어강좌 - 주2회 화~목오후8시30분기초반개강
• 가리교실 - 주회화-금(오후7:30분)10월13일(화)기초반개강
• 미술교실 - 주2회 (성인반,아동반) 10월개강
• 애니어그램1단계 - 10월 23일(금)~24일(토)

가톨릭 호출 택시 회원 모집(교우님)

대구 개인택시 형제님 저희 호출회원으로 환영합니다. 교우 형제님! 자매님! 가톨릭 호출 택시 551-1004로

가톨릭요שב발건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 가톨릭문화관118호
• 문의: 476-7774(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www.footfather.com

성정하상 성당 사무직원 모집(767-0920)

• 자격: PC업무 가능자, 제출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 2010년 백합어린이집 원아모집

• 입학설명회: 10.22(목) 10:30(원서 교부함)
• 문의: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부설 256-6862

★ 안내 ★

동명성당 주일 저녁8시30분 미사 있음.

• 문의: 054-976-8658 (10월11일부터)

10월 가나강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10.18(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 / 010-8853-7458

2010년 대구주보 광고 접수 안내 (250-3052)

• 일시: 11.9(월) 09:00부터 사목국 방문 후 접수
•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교적사본, 본당신부님추천서, 광고문안
• 광고료: 1회 12만원, 대추일 15만원(전액 선금)
• 참조: 사업주가 담당자이거나 교구 신자들의 유익을 헤치는 업체는 광고 불가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목주기도 성일 '함께 바치는 목주기도'	10월 중 매일 오후 3시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10월 12일(월) 오전 11시	족도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2일(월) 오전 11시	성모당	구미지역 군흥후원회 미사	10월 12일(월) 오전 11시	신명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2일(월) 오전 11시30분	2대리구청-범어성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10월 12일(월) 낮 12시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12일(월) 오전 11시	3대리구청-울성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0월 13일(화) 오전 10시30분	도원성당

2주에 5~7kg 감량

혈액을 맑게, 독소와 숙변 노폐물 제거, 체질개선.

(이강옥교수의 종합 야채효소)
한경애테레사 053)793-7997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하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로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 룯 데 점 -

자기 주도 학습 1:1 코칭
(이분 3개월)

성적 향상 / 시험불안 해소
학습태도 개선 / 자신감 향상 / 관계 개선
아시아코칭센터(행복한 공부) / 중앙일보연구소
학습전문코치 **고은경** (미키엘라)
범어동 355-2630/011-829-8756

결혼상담

20년 전통의 성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일(마리아) · 압(논나)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결혼상담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한신 주택개발

주택 수리 전문
지붕 우레탄 폼 방수
냉동창고 보온 단열
지붕칼라강판 및 판넬공사
053) 555-5432
박익주 마태오 011-529-7501

보석 시계 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임종화(바실리오)
423-6336, 011-809-3003

**3대를 전통과 신도봉이를 고집하는 기업
(주)약령시사람들**

“경옥고 다양한 제품류”
노인성 질환, 성장기 어린이, 갱년기 여성 등
웰빙건강식품 (교우님 특별 우대)
대표이사 : 양대석 (안토니오)
☎ 428-8002, 011-528-8008